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

세계 최고의 거리극 광주에서 펼쳐진다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6월 2~4일 문화전당, 5·18민주광장·금남로서 열려

국내의 대표 거리극단 초청

'마법의 밤' 등 6편 공연

개막 퍼레이드 참여 100명 모집

광주 도심 한복판에 흥겨운 난장이 펼쳐진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다채로운 '거리극'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하늘 높이 솟은 공중 곡예, 건물 외벽에 매달려 펼치는 퍼포먼스, 움직이는 수레 위에서 만나는 음악...

매주 토요일 광주 금남로 일원을 달구고 있는 '2017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과 함께 또 하나의 축제가 시작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다. 오는 6월 2일~4일까지 3일 동안 아시아문화전당·5·18민주광장·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광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 세계 거리극들을 만날 수 있다. '거리극 축제'다.

주최측은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축제 사무국을 구성하고 최근 총감독으로 임수택(춘천인형극제 예술감독)씨를 선임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거리극 개념을 도입한 임 총감독은 성공적으로 과천한마당축제를 치러내며 오늘날 우리나라 거리예술과 거리예술축제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거리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 거리극단을 초청, 20여 작품을 선보인다.

해외초청작으로는 스페인 대표 거리극

단 '작사(Xarxa Teatre)'의 '마법의 밤'과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보알라 정가장' 등 6편이 금남로와 민주광장의 밤거리를 수놓을 예정이다.

국내초청작으로는 현대 도시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괴담 형식으로 풀어내는 '서울괴담'의 '보이지 않는 도시', 이동형 거리음악극을 만드는 '음악당 달다'의 '랄랄라쇼',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매달려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창작중심 단다'의 '꽃과 여인'을 포함한 거리극 10편이 대기중이다.

특히 시민이 함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개막 퍼레이드는 '축제를 위한 행진'을 주제로 놀이패 신명의 박강의, 스페인 작사 극단의 마누엘 빌라노바(Manuel V. Vilanova), 레안드레 에스카미야(Leandre L. Escamilla) 등 광주와 스페인의 대표 연출가 3인이 공동연출한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동 주최를 계기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사무국은 다양한 협력과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100명이 함께 만드는 개막 퍼레이드는 특히 눈길을 끈다. 퍼레이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0일까지 이메일(2017accfringe@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또 공연·진행·홍보·통역 등을 지원할 자원활동가와 축제 정보를 전국 각지에 알리는 온라인기자단도 모집하고 있다. www.fringeinternational.kr. 문의 062-601-49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당 달다'

대인시장 '지구발전 오라' 레지던시 예술가 8명 모집

광주 대인예술시장 내에 자리한 청년예술단체 '지구발전 오라'가 '2017 가치공유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 8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와 기획자가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협업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입주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 및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

시각예술가, 공연예술가, 기획자, 평론가 등 장르와 나이, 학력, 성별 제한없이 국내 예술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와 기획자에게는 창작지원비, 창작공간,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9일까지 참여신청서와 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를 우편(동구 대인동 308-15) 또는 이메일(daaura@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232-419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생각의 집에 쏟아지는 '여행자'의 감성

홍애니 시집 '브리타니아 들판에서...' 발간

방외인의 시선은 정적자의 그것보다 감성적이다. 낯선 곳에서의 심상은 일상의 공간에서 부딪치는 감정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이의 삶은 여행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에게 주어진 순례를 거치는 과정이다.

계간 '시산맥' 특별회원이자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애니 시인은 지난 2003년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의 작품에 유랑의 언어가, 유랑의 심미안이 깃들어 있는 이유다.

이번에 홍 시인이 펴낸 '브리타니아 들판에서'는 '브리타니아'라는 낯선 언어의 노래라도 해도 들 만큼 이국의 정서와 모국에 대한 정감이 잘 어우러져 있다. 시집은 제 13회 시산맥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으로 출간됐다.

모두 52편이 수록된 작품집은 '슬로 TV를 보다', '달의 엔진소리', '바질 감성 언어', '귀가'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집에는 표제시의 지명 '브리타니아'처럼 이국적인 공간이 자주 등장한다.

"밤 브리타니아의 숲에서 늦은 디



너/ 술과 음식 앞에서 여자와 남자는 서로 쉽게 용서한다/ 입속을 가득채운 음식 때문에/ 단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인데

/ 중얼거리는 말이 들리지 않는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 땅 위에는 이미 늦은 것들로 가득하다...('브리타니아 들판에서' 늦은 디너를' 중에서)

표제시 '브리타니아 들판에서'는 '브리타니아'라는 낯선 언어의 감성이 잘 녹아 있다. 특히 음식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를 환기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뿐 아니라 시의 배면 곳곳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소재 등이 깔려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화자의 내면 깊은 곳에 고향으로 치환되는 원초적인 정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해수 평론가는 "홍애니 시인의 이번 시집은 '생각의 집' 속에 무궁무진 쏟아지는 '여행자'의 감성 언어를 한껏 품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알라딘, '오늘의 작가상' 독자 심사위원 모집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오늘의 작가상' 주관사인 출판사 민음사와 함께 2017 오늘의 작가상 최종 심사를 맡아 줄 독자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리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독자는 소설 리뷰 2편 이상을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작성하여 URL 주소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해당 모집 페이지에 댓글로 달면 된다. 대상 도서 출간일에 제한은 없으며 한국 소설 및 해외 소설 모두가 대상이다.

최우수 리뷰어로 선정된 독자는 심사비 50만원과 함께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도서 전권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방영은씨를 독자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심사는 방씨와 허희 문학 평론가가 함께 맡을 예정이다.

한편 '2017 오늘의 작가상'은 6월 중 1차 추천작 20편 및 최종 후보작 8편을 선정하는 독자 투표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8편은 독자 심사위원을 비롯한 기자, 평론가, 서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그 중 1편이 최종 선정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작은 7월 말 발표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센터, '전통나들이 일주 덩더쿵' 교육생 모집

광주서구문화센터가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전통나들이 일주 덩더쿵'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전통예술 감상교육이다. '전통의 이해', '기본 장단과 추임새 배우기', '교과서 속 고전문학을 소재로 한 창의역할극', '공연 기획자가 들려주는 무대 이야기' 등으로 꾸며진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서구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오는 20일부터 11월18일까지 4기수로 나눠 총 16회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자는 10일부터 각 기수별로 선착순 40명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운영사무실(062-373-1365)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